

KISA 안전·보건표지 공포 예정



안전협회(회장 이홍지)는 11월 27일 중앙회 대회 의실에서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안전학회, SK(주), 안전신문사 등 안전보건 관련 단체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KISA 안전·보건표지 기준 심의위원회를 갖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임오년 새해에

안전협회는 2001년도 제30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12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임원 및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날 이홍지 회장은 인사말 통해 지난 IMF 금융지원 체제에서의 국내 경제 어려움에서도 중앙회 신사옥 이전 및 협회의 로고를 진취적 기상을 담아 새로 제정 선포하였고, 협회 월간지인 "안전기술"을 최고의 안전전문지로 정착, 안전보건표지 기준 제정 등 산업사회에서 협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협회의 활동범위를 세계로 넓히기 위해 중국 대륙에 대해 시험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본격 진출을 위한 중국 중앙 안전기구 뿐 아니라 천진 등 지방자치단체 안전기구들과의 기술협력 협정을 이루고 있고, 베트남과도 협정, 미국의 Brady, Panduit, DuPont, 영국 BSI사와의 활발한 기술협력

공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표지 55종에 대해 규정되어있으나, 사업장의 다양한 공정과 설비 등 작업환경에 적용하기가 부족하여, 이에 안전협회에서는 안전·보건표지를 새로이 재정립한 기준을 개발하였다.

그 종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소방표지, 유해물질표지 총 200종으로 장소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형, 세로형, 가로형을 CD로 제작 배포된다.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문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 CD에 수록된 안전보건표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인 컴퓨터와 칼라 프린터를 이용하고, 출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서는 아래이한글, MS워드, 엑셀 등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출력이 가능하므로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안전협회에서는, 향후 작업요건에 따른 새로운 안전보건표지를 지속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30차 정기대의원 총회

이홍지 회장 재선임



강화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과의 기술자료 교환을 하는 등 안전전문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항상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날 총회의 중요 안건으로는 이홍지 회장과 홍범

표 감사의 임기 만료로 재선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협회를 발전시켜 위상을 고취시키고, 투명한 경영으로 이끌어온 이흥지 회장과, 흥범표 감사가 연임 되었다.

교육자료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안전협회(회장 이흥지)는 11월 30일 중앙회 교육장에서 교육자료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흥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 발전을 위해 이런 대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겠으며, 이제 정부에 기대기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 진다는 자세와 각오로 지회별 교육자료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최고수준의 교안을 만들자.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대회 결과 대상에 경기북부지회 성민영, 금상에 대구지회 한재환, 은상에 안산지회 이영우, 장려상에 부산지회 김종국, 전북지회 박상기 직원이 입상하였으며, 앞으로 CD로 제작 지회에 배부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협회송년행사 이모 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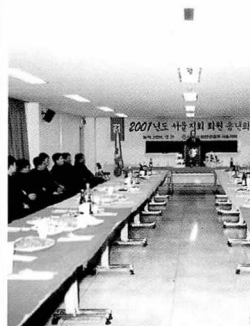
▼12월 18일 대구지회(국장 황갑주) 송년행사
이흥지회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노동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도 지회장((주)서광종합건설 대표) 취임식 및 안전관계자 송년 간담회 실시



◀ 12월 19일 인천지회(국장 이백현)송년행사
안전협회 김문영 관리이사를 비롯한 이달수 인천청 산업안전과장 등 내·외귀빈과 안전관계자 150여명 참석하에 실시.



◀ 12월 21일 서울지회(국장 채수현) 송년행사
지역관내 안전관계자 100여명 참석하에 실시



그 외 부산, 수원,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 관내 안전관계자를 초청하여 2001년을 결산하는 안전관계자 송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대우건설 『화곡대우그랜드월드』 현장

12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지난 12월 4일 대우건설 화곡대우그랜드월드 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비롯하여 대

지난 12월 21일 매일경제신문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9회 안전경영대상 수상식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대지금속(주)(김혜삼 사장)이 대상을 받았다.

“혼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항상 인간 중심의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대지금속(주)는 2002년도 싱글 PPM 대통령상 수상, 무재해 5배 달성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QS-9000, ISO14001 등 많은 수상과 인증 경력을 자랑하는 중소기업이다.

충북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금속(주)는 소형 자동차의 EXHAUST SYSTEM과 AIR INDUCTION SYSTEM을 생산하는 업체로 무재해 10배 달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우건설 건설관계 임원과 협력사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은 안전기관 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초청되어 실시되었다.

본 현장은 현재 330만 시간 무재해를 달성하였고, 준공일까지 무재해를 달성하면 국내 주택부문 프로젝트 사상 최초로 600만 시간 무재해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 이날을 위해 대우건설 본사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현장에서는 열의를 다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강서구청에서 환경모범현장으로의 지정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 받는 등 대외적으로 안전한 현장으로 평을 받고 있는 현장이다.

점검 총평을 통해 이홍지 회장은 타의 모범의 될 만한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며, 준공 그날까지 단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대망의 600만 시간이 달성될 것을 믿는다고 했다.

대지금속(주) 제9회 안전경영대상 수상

- 중소기업 부문 -



동명산업 2001년 경상남도 안전문화상 수상



동명산업(박재환 사장)은 지난 11월 28일 2001년 경상남도 안전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남도 안전문화상은 현대사회가 산업화,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문화운동의 중요성 제고 및 사회전반에 안전생활 실천의지를 고양시킨 개인 및 단체를

선정 포상하는 국내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포상제도이다.

모두 5개분야(가정안전, 학교안전, 공공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에서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안전협회 창원지회에서 대행관리하고 있는 동명산업(주)가 산업안전 분야에 선정되어 포상을 받게되었다.

동명산업(주)는 냉장고 콤프레사 가공회사(LG전자 사내협력사)로써 지난 99년 4월 설립과 동시에 안전협회에 안전대행을 실시해 왔으며, 2000년에는 소규모사업장에 맞는 안전교육 기법을 개발하여 포상을 받은바 있으며, 창업이후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 10월에는 무재해 2배를 달성하고 3배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주)동원 EnC/건설

안전관리자 Work Shop 개최

(주)동원 EnC/건설은 12월 20일, 21일 양일간 용인 한화콘도에서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Work Shop(직무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Work Shop은 매년 (주)동원 EnC/건설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99년에 안전협회에 안전컨설팅(안전진단 및 점검, 건설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포함)을 의뢰함으로써 다각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안전컨설팅의 일환으로 안전협회에서 주최하였다.

현장의 안전관리 실무교육과 직원 소양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Work Shop은 참석한 안전관리자들의 정보교류장으로 참여 열

기가 뜨거운 행사였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 진단, 기술지도, 교육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전컨설팅은 기업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조기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필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TOP 강사요원 양성교육

최근 미국 DuPont사가 개발한 STOP기법 도입을 위한 교육 의뢰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협회에서는 STOP법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24명의 예비강사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